군산 임피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현재 9개 업체만 입주한 상태… 물류시설ㆍ창호업종추가로 분양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임피산업단지 입지여건과 입주 희망업체 실수요를 반영하여 지 난 14일 물류시설과 창호업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임피산단의 분양활성 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피산업단지는 2014년에 산업용지 (17만6,243㎡) 등 총 23만9,187㎡ 규모로 조성되었고, 경기침체와 폐수발생업체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현재 9개 업체만 입주한 상태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분양활성화를 위해 소필지화 사업과 입주업종 확대를 추 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 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연관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가 있어 입주문의가 많은 물류시설과 연관업 체인 창호제조 업종을 추가했다.

임피산단은 27번 국도와 인접해 있

군산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고 서해안고속도로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도시와 접근성 및 물류수송 여건이 뛰어난 점을 활용해 이번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일부가 물류단지로 특화되었다.

입주 가능한 물류시설은 유통이 수 반되는 운수, 창고 서비스업으로 일 반화물자동차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과 물류 연계업종인 플라스틱 창호제 조 업종이며 입주기업의 토지 매입자 금 부담 완화를 위해 500~700평 범 위 내에서 소필화 사업도 함께 추진

이밖에 입주가능 업종은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의료,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이며 선착순으로 수의계 약이 가능하고 분양가는 114,809원/㎡



군산시가 지난 14일 임피산업단지에 물류시설과 창호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분양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다. 기타 분양문의는 투자지원과 산단관 리계(☎ 454-27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현기자

지역공동체일자리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 22~27일까지

군산시가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소, 의산시는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이번 일제 백신접종은 소 50두 이 상, 돼지 1천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익산군산축협에서 직접 구입해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12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소규모 농가의 소 2,770두와 돼지 663두에 대해 공수의사 3명을 투입하여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축산사업 지원대상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여름철 집중 방역소독

군산시 보건소는 지구온난화 및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모기매개 및 위생해충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방역기동 4개반에 15명을 편성하여 공공주택, 대형건물,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내 지하 집수정, 정화조 등의 모기서식 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모기유충 및 성충을 박멸 중에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22~27일까지 7일간 동시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9명을 모집해 8~11일이라 그무하고, 공공근 지원으로 1일이라 1일 기업이다.

집해 8~11월까지 근무하고, 공공근 로사업은 34명을 선발해 9~11월까지 각각 진행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

함)로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생계급여수급자(의료, 주거, 교육은 가능),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하여 한 자는 제안하다.

이상 반복참여 한 자는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또 는 공공근로사업 중 한 가지 시업에 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 증, 가접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859-5237),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역산=장양원기자

정지영 영화감독 초청 인문아카데미 22일 개최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민예술촌은 정지영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에 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인문아카테미를 개최한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남 부군', '남영동 1985' 등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영상에 담아 시대가 겪은 다양한 이품들을 영화로 표현하는 영화계의 대표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강의는 정숙인(소설가), 임회 성(독립영화감독)의 공동사회로 진행 되며 정의로운 싸움꾼! 정지영감독! 한국영화를 알리다 라는 주제로 자신 의 영화 인생이야기, 대한민국의 국 민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필요성, 안성기, 최진실 등 수 많은 영화배우들과의 영화작업 등의 내용을 담백하고 진솔한 콘서트 형식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신청접수는 오는 21일까지 군 산시민예술촌.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 지급

군산시는 누수율 최소화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시민들의 도로변 누수신고 독려를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빠른 누수지 복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련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 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 산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mm이상은 4만원 상당, 100mm이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 품으로 관계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 장을 확인해 복구 후 군산 친환경 농 산물 또는 수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시에서 지급한 누 수신고 포상금은 81건이며 162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관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 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 454-5426) 나, 야간 당직실(☎ 454-4222)로 하면 된다. /군산=장 현 기자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원광대, 교육서비스상 수상

원광대학교가 지난 16일 조선호 텔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지속가 능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서 비스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지속가능경영 운영본부 및 한국지속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은 지속 가능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의 발굴·포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책임 보고서, 환경 보고서, 사회장헌 백서 등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원광대는 지난해 7월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대학 최초 로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 G4 평 가기준을 충족한 'ISO 26000(사회 적 책임 국제 표준)' 이행 수준 최고 등급 획득하고, 9월에는 한 국표준협회 주관 2016 대한민국지 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 고서상(KRCA) 최초보고서 부문 1 등 상을 수상하는 등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원광대의 지속가능성경영 보고서는 ▲대학특성화 ▲교육 전 문성 ▲학생서비스 ▲상생협력 ▲ 사회공헌 ▲그린캠퍼스 조성 ▲대 학 경쟁력 강화 등 7대 핵심 이슈 를 중심으로 변화된 대학 환경 요 구를 올바로 인식하고, 지역과 사 회, 나아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 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원 광대가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노 력과 성과들을 소개해 호평을 받 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농기, '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정책 상담관 · 체험관 운영… 150여명 상담 · 홍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라 북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창업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 일간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담당공무 원 2명, 상담요원 6명이 귀농정책 상 담관, 생활 체험관을 운영하고, 귀농 귀촌인 유치 홍보와 귀농귀촌 예정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사당자들은 이사시 귀녹귀초 전체과

상담자들은 익산시 귀농귀촌 정책과 귀농귀촌 방법 등을 주로 상담했으며, 시는 귀농귀촌 정책사업에 중점을 두 고 지역 귀농 장점과 내년 사업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풍부한 농촌지원과 교통의 요지인 익산시는 최근 완주군 다음으로 인구



전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수도권 귀농인 유 치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박람회 참가 등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고 생산기반 지원, 귀농창업지원 등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농 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